

지역 소식통

권익현 부안군수 현장행정
졸포만 갯벌생태공원 방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22일(목)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졸포만을 찾았다. 이번 현장행정은 졸포만의 주요 사업장 및 업체를 방문해 평소 강조해온 현장 행정 소통 강화를 통해 군민의 건을 수렴하고, 균형 현안 정책을 공유하고자 실시됐다.

첫 방문지로 졸포만 갯벌생태공원을 찾은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청 민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 현장을 찾아 격려했으며, 졸포만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 졸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등 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공급업체(유한회사 한길수산)를 방문해 예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관공감대를 형성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에 직면한 군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청년정책 소통학교 개최

부안군은 22일 부안예술회관 다목적 강당에서 전북 서남권역 청년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 찾아가는 청년정책 소통학교를 개최했다.

청년정책 소통학교는 전북청년허브센터((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부안군을 중심으로 정읍시와 고창군이 함께 참여해 청년정책에 대해 서남권 청년들의 생각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는 전북 서남권역인 부안, 정읍, 고창 청년들의 활동사례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특히 청년들의 질문에 사례발표자(부안 이철희, 정읍 유현영, 고창 은서연)와 각 지자체 관계자가 답변하며 청년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가는 과정으로 이뤄져 정책해는 주제로 토론하는 형식이 아닌 자유로운 소통으로 다른 지역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고창=김영식기자

확 트인 내장산 · 내장호

정읍시, 조각공원 인근 전선 지중화 사업 마무리 2억6000만원 들여 경관개선... 관광 활성화 기대

정읍시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특히, 내장산이 호남의 으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장호 주변에 다양한 관광·휴양시설과 공간을

마련하며 사계절 관광지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내장호는 내장산관광북구의 중앙에 위치한 호수로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생태공원 등 꾸밈의 아름다움이 빼어나게 어우러진 곳이다. 하지만 곳곳의 전선주와 처렁치렁한 전선들 때문에



정읍시는 내장산 관광의 목에 티인 전선주를 없애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22일 공사를 마무리했다.

내장호 주변의 수려한 경관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내장산 관광의 목에 티인 전선주를 없애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22일 공사를 마무리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봇대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통신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2억6,000만원을 투입해 내장호와 조각공원 사이를 가로질러 설치된 약 250M 구간의 전선주와 전선의 자취를 감추며 자연경관을 개선했다.

유진섭 시장은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목에 티를 걷어내면서 안전은 물론, 더욱 아름다운 내장호 주변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광상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의 내장호는 가장자리에 드넓게 퍼진 버드나무가 가을 운치를 뽐내며 자리 잡고 있고, 해질녘에는 내장산 서래봉과 불출봉의 울긋불긋한 단풍이 호수에 내려와 화폭이 되는 보물을 숨기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 북분자 산업특구, 전국 우수특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영예

'고창군 북분자 산업특구'가 전국 우수 산업특구로 선정되면서 고창군의 농생명 산업 특화정책이 빛나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 북분자산업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우수특구에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함께 포상금 50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는 전국 190개 산업특구 중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단 12개만 선정된 것으로 고창군 북분자 활성화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고창 북분자 산업특구는 2004년

지정됐다. 아산면, 심원면, 부안면 일원 508만1840㎡ 면적에 선운산 북분자 생산벨트 조성사업, 북분자 경관도로 조성사업, 북분자 세계 브랜드화 사업, 북분자 축제 활성화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북분자 관련 사업을 집적화해 북분자 일번지로 자리매김했다.

고창 북분자는 향과 맛이 뛰어나며, 북분자주와 식초 등 다양한 제품들이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의 입맛도 사로잡았다. 여기에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에 3억3000만원 상당의 수출과 특구지역내 기업의 꾸준한 매출액 증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민선 7기 고창군은 북분자 산업활성화를 지역 3대 현안사업으로 삼았다. 이후 북분자 생산지원, 고품질 안전 북분자 생산을 위한 농가교육, 유통구조 일원화를 위한 소매장려금 지급, 고사원인 극복을 위한 실증사업, 배리엔바이오식품연구소 특허출원과 관내 기업 기술이전 등을 추진해 왔다.

고창군청 배기영 농생명지원과장은 "고창 북분자 산업특구를 내실있게 운영해 고창 북분자 산업활성화에 한 단계에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전국 농업경영혁신사례 경진대회 '우수'

정읍시는 최근 대전 유성에서 열린 2020년 전국 농업경영혁신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 주최로 현장 중심의 농업 경영혁신의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역 농업인 조급자 맑은샘자연교육농원 대표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이훈희 주무관이 채소혁신팀으로 참가했다. 이들은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농산업 경영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심사 끝에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채

소에 관한 혁신적인 신개념 제품개발과 정읍시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산업으로서 가치 창출로 안정적인 소득 향상과 지역사회 일지리를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현장 경험 공유와 농업경영교육을 통해 정읍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환경부 주관 2021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신규사업지로 아산면 반암리(아산초등학교 일원)에 위치한 병바위가 선정됐다.

병바위~인천강 생태문화탐방로 만든다

고창군, 2021년 신규사업 확정 국비 등 18억들여 2022년 완료

고창군은 환경부 주관 '2021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신규사업지로 아산면 반암리(아산초등학교 일원)에 위치한 병바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비를 포함한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부터 병바위와 인천강 하구습지를 연결하는 탐방로 6km, 지질 테마 학습장 친환경 주차장, 화장실, 안내·편의시설 등을 만들 예정이다. 사업은 2022년 완료된다.

이를 통해 생태와 지질자원 교육·체험공간과 함께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병바위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이색적인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강 기수역을 비롯해 선운산과 운곡습지를 연결하는 생태관광 인프라 연계점을 마련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강 병바위(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신26-3번지)는 2017년 9월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되고, 현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절차에 있는 고창군의 지질명소다.

지질암석 풍화작용의 대표적 특징인 '타포니'와 인천강 하구습지'와 연결되는 추진천의 생태를 함께 관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독립적 암괴 '소반바위'와 기암괴석 지질구조를 가진 전좌바위 등도 살펴볼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지질과 생태의 경관을 바탕으로 하는 이색적인 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신소득 약용작물 '복령' 대중화 팔건어

하우스 재배기술 개발 추진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신소득 유망 약용작물 발굴과 현장 예로 기술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상토를 이용한 '복령' 하우스 재배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복령'은 예로부터 심신 안정과 이뇨, 강장 등에 효과가 있어 심전대보탕과 경육고 등의 처방에 많이 이용되어 온 특별한 버섯이다.

최근에는 폐암 세포 증식 억제와 면역력 증가에 대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그 수요가 늘고 있지만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복령은 대부분 점종한 원목을 묻어서 노지 매물재배를 하는데 군사 점종 방법에 따라 볼발 종균 재배와 복령 조직(절편) 재배, 점종목 재배 등이 있다.

이러한 재배방식은 농가의 진입장벽은 낮지만,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재배기술 숙련도에 따라 수량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시설재배법은 미리 종균을 점종한 원목을 비닐봉지에 넣어 재배하는 배양목 재배와 톱밥 배지를 만들어 병에 재배하는 방법이 있으며, 대량생산은 가능하나 초기 경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복령 안정생산을 위해 상토를 이용한 하우스 재배기술을 개발 중이다.

복령을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면 저온기 지온 상승으로 군사활착이 양호해지고, 잡균의 피해율도 적으며 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마철 강우 차단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토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수확 작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